

[기획] >> 3면  
코로나19 재확산, 아득해진 2학기 대면

[심층] >> 5면  
수강신청, 학생들이 내몰린 전쟁터

[학술] >> 9면  
결전의 기로에 선 K-방역체계

[인물] >> 12면  
이소정 KBS메인앵커를 만나다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어긋나는 목소리들

▶4면에서 계속

지난달 19일,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우리학교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무엇인지 △학교와 학생의 의견 갈등은 어떠한지 △법인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사진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 우리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일부 변경

이번 달 25일, 우리학교 수시전형 모집이 시작된다. 전체 입학정원의 60.6%인 2,159명이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우리학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해 여러 사항이 변경됐다. 첫 번째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종합전형)의 신설 및 모집인원 확대다. 면접평가 없이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서류형' 전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합전형은 △고른기회전형 I·II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뉘게 됐다. 또한 종합전형으로 지난해에 비해 168명 늘어난 1,179명이 뽑힐 예정이다. 입학처 관계자는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세분화해 선발하는 목적은 한 가지 방식으로 선발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업 우수자 중심의 서류형과 활동 우수자 중심의 면접형으로 다변화해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 전했다.

두 번째로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심사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 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만 반영했지만 이번 해부터 비교과영역인 출결·봉사도 포함된다. 또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교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

저학력기준(이하 수능 최저기준)이 신설됐다. 입학처 관계자는 "설캠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기준 신설 목적은 과도한 내신 경쟁을 방지하고, 수능 우수자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해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우, 비교과영역인 출결·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해 전원 면접 처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논술전형 모집인원 축소 △설캠 논술전형 수능 최저기준 완화 △특기자전형 폐지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엔 설캠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면접고사 △필기고사 △한국어시험이 진행됐다. 이 전형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했으며, 이후 면접고사와 한국어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대체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북한이탈주민스승·고교과정 해외이수자스승·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 우리 학교 캠퍼스타운 취·창업 연계 IT교육 실시

이번 달 7일, 우리학교는 '캠퍼스타운 취·창업 연계 IT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우리학교에서 운영되는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은 이번 달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교육 후 채용 연계 과정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IT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블록체인의 이론·인공지능 기술 교육과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T 현직 실무자의 이론 및 실무 강의 △직무 탐방 △해커톤\*\*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취·창업 실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후 채용 연계 과정에선 참가자와 IT

기업을 매칭하는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 희망자의 경우 우리학교 사이버관 창업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캠퍼스타운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이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민 혹은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타운은 총 34곳이다.

\*블록체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해커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섬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완성하는 행사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GLOBAL  
ICT SOLUTION  
LEADER

ONYCOM

스마트 혁명과 창조 경제 시대에 발맞춘  
Total ICT Solution & Service로  
고객가치를 실현합니다.

어니컴(주) | Tel : 02.541.0080

www.onycom.com



SQA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IMQA  
모바일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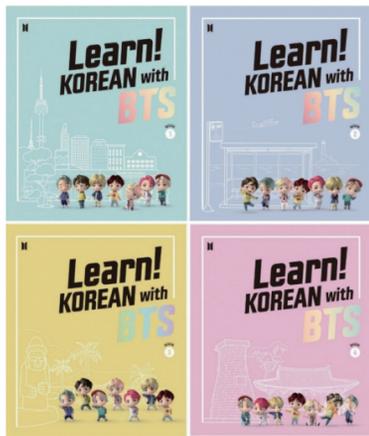
ANKUS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TestForte  
모바일 원격 테스트 솔루션

Goldendays  
시니어전문 쇼핑몰

# 우리학교, 빅히트 에듀·KF와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제작 협약

지난달 12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교육 독립법인 빅히트 에듀△우리학교△한국국제교류재단 KF는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달부터 해외의 한국어 학습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부응하며, 동시에 외국인에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런! 코리아 워드 BTS

이번 가을 학기부터 △미국△베트남△이집트△프랑스 등 해외 대학에 '런! 코리아 워드 BTS'를 활용한 온라인 한국어 강좌 'KF e-스쿨'이 개설된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제작한 한국어 교육 교재가 해외 대학에서 어학 교재로 채택됐다. '런! 코리아 워드 BTS'는 외국인인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빅히트 에듀가 제작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다. 이는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기존 콘텐츠

를 재구성한 것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듣고 따라하며 △기본 표현△기초 한글△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콘텐츠 개발과 감수엔 허용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많은 해외 대학이 '런! 코리아 워드 BTS' 강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면 KF와 함께 오프라인 강좌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빅히트 에듀△우리학교△KF는 사업을 확대해 해외의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어 필로십'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 글로벌캠퍼스 학내 버스의 새로운 변화



▲통학버스 예상도 ▲앱 구성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통학 버스가 재단장된다. 먼저 기존 전세버스 운영 업체 '나이스관광'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동영관광'으로 바뀐다. 이에 글캠 통학 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통학 버스의 외관이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기존 청록색 계열에서 우리학교 상징색인 남색으로 탈바꿈한다. 김석중 글캠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장(이하 김 팀장)은 "세련된 디자인에 우리학교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변화는 서비스 운영 개선이다. 통학 버스 전용 앱 '버스인'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엔 △실시간 버스 위치 확

인△실시간 민원 제기 및 서비스 요청△버스 사정에 의한 지각 사유서 작성 등의 기능이 있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통학 버스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학 편의 서비스를 향상해 학생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교내 셔틀버스의 회차 정거장이 변경돼 재학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전 9시 30분 이후부터 회차 지역이 기존 '외대 사거리' 정거장에서 정문 아래쪽 '지석묘' 정거장으로 변경된다. 김 팀장은 "기존의 외대 사거리 정거장은 동네 주민 민원 발생과 횡단보도 교차로 인근이란 안전상의 이유로 총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교내 셔틀버스의 운행 주기가 짧아져 학생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이동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3시엔 버스 3대를 추가로 투입해 재학생의 수월한 교내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우리학교, 주한 터키공화국 대사관과 터키 정부 인턴 파견 협정 체결

지난달 21일, 우리학교는 주한 터키공화국 대사관과 '터키 정부 인턴 파견' 관련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 정부 인턴 파견 프로그램은 △국영 항공사 터키항공△유니스트 △주한 터키문화원 △주한 터키공화국 대사관 주도하에 진행된다. 우리학교 재학생 중 6명을 선발해 1년간 다양한 인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학생 선발 과정에선 터키어와 영어 구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선발된 학생은 △터키 대통령실△터키 외교부△터키 국제협력단(TICA)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념사진을 찍는 관계자들

오종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시점에, 이번 인턴 프로그램이 재학생의 취업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것

로 예상된다"며 터키 전문가 양성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터키 인턴 프로그램은 우리학교의 공식 해외 인턴 파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하반기 선발 과정을 거쳐 다음 해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협정식엔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이우나 국제교류처장△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진 △오메르 헬랄콜 참사관△에르친 주한 터키대사 △오종진 유뉴스 엠레 터키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기미독립선언문 11개 외국어로 번역 및 열람 서비스 개시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아프리카어△우즈베키스탄어 등 11개 언어로 기미독립선언문을 번역했다. 번역된 기미독립선언문은 외대학보에 지난해 3월부터 이번 해 6월까지 정기적으로 기고됐다. 이어 지난 달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기미독립선언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미독립선언문은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일제 강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집필한 발표문이다. 번역된 11개 언어 사용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받은 과거가 있다. 이 작업에 참여한 교수진은 번역문에 대해 "외세의 침략과 지배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특수외국어문화권

**기미독립선언문 열람 서비스**  
 통째로 2020.08.25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개 언어(중국어, 불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스페인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인디언어, 태국어, 타이어, 요르드 아랍어)로 기미독립선언문을 번역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11개 언어로 번역된 기미독립선언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천명하고, 일제 강점의 부당함을 선포하기 위해 집필된 기미독립선언문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소중한 계승이다. 이는 독립선언문과는 달리 중외의 광범위한 국제적인 계층을 내세우지 않고, 민족 공동의 발과 방향을 일관하여 선언문에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지대를 넘어서는 우리 국민의 인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외세의 침략과 지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특수외국어문화권 국가들에 한하여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독립선언문 열람 서비스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소중한 계승이다. 이는 독립선언문과는 달리 중외의 광범위한 국제적인 계층을 내세우지 않고, 민족 공동의 발과 방향을 일관하여 선언문에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지대를 넘어서는 우리 국민의 인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외세의 침략과 지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특수외국어문화권 국가들에 한하여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독립선언문 열람 서비스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소중한 계승이다. 이는 독립선언문과는 달리 중외의 광범위한 국제적인 계층을 내세우지 않고, 민족 공동의 발과 방향을 일관하여 선언문에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지대를 넘어서는 우리 국민의 인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외세의 침략과 지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특수외국어문화권 국가들에 한하여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에 올린 서비스 공지

육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돼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기관이다. 현재 특수외국어를 중심으로 11개 언어의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플랫폼 사업과 시민 대상 무료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외국어 교육 및 대중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돼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기관이다. 현재 특수외국어를 중심으로 11개 언어의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플랫폼 사업과 시민 대상 무료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외국어 교육 및 대중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제6회 우리학교·YTN 초등학생 영어 토론대회, 온라인으로 성공리 개최

지난달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우리학교와 YTN이 주최한 제6회 초등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열린 첫 번째 대회다. 본 대회엔 전국 초등학생 59팀이 참가했다. 이 중 국제 리그 35팀과 국내 리그 24팀이 각각 예선 3경기와 본선 4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공공정책△교육△가족과 사회△과학 기술△미디어△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걸쳐있어 참가자의 다양한 답변을 유도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의 영어 실력보다 실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최종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Superb Team 상'의 영광은 국제 리그의 'Ascendancy' 팀과 국내 리그의 'Ender' 팀이

각각 차지했다. 주최 측은 온라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가 향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대면 대회 진행이 제약 받는 상황인 만큼, 각종 대회 및 학술 활동에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대회 수상팀의 수상 소감 및 토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YTN 홈페이지에 차례로 게재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이재원 우리학교 교수, 호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쾌거

지난달 12일, 이재원 우리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가 육군본부에서 주최한 '제10회 호국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문 우수상인 육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이 교수의 작품인 '1950년 겨울: 장진호 근처 II'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작품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에 호국미술대전을 알게 돼 이번 해 출전을 다짐했다"며 "그림 주제로 신탄지역 철도 중단점인 '철마는 달리고 싶다'와 '펀치볼' \* 등을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장진호 전투를 그림에 담기로 했다"고 주제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대학생 때 우리학교 그림 동아리 '그림촌'에서 창작 활동을 했는데 이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



▲1950년 겨울 장진호 근처 II

어저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이 교수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미술 동아리 '하얀 공간'의 지도교수를 맡아 재학생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양 캠퍼스 도서관에 자신의 작품 32점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호국미술대전은 △국군 △안보△호국 등 국방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매해 개최하는 미술대전이다. 이 교수의 작품을 포함한 수상작은 이번 달 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구 독립기념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펀치볼(Punch bowl):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화체(Punch)와 그릇(Bowl)처럼 생긴 분지.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코로나19 재확산, 아득해진 2학기 대면 여부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우리학교 2학기 학사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지난달 3일, 학교 측은 개강 후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은 배려가 없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했다. △우리학교 내 코로나 확산 위험성 △재학생이 겪는 혼란 △학교 측 입장 △합리적 대책 강구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또한 대규모 감염 위험 노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이 통학에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은 유동인구가 많고 경기도부터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감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린(중국·중언문 19) 씨는 “지하철로 통학할 때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많은 학생이 광역버스 및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통해 여러 지역을 거친 학생의 교내 유입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글캠 교내 셔틀버스는 재학생의 사용 빈도가 높고 밀집 시간대가 비슷해 방역에 취약하다.

지난달 3일,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상황과 강의실 환경을 고려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개강 후 2주간 모든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후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 ◆학교의 일방적 지침으로 고통받는 재학생

우리학교 재학생은 지난 학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학교 측 공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주씩 비대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했다. 이런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학교 측의 대응은 많은 학생의 불편을 야기했다. 박지연(경영·경영 20) 씨는 “학교 공지에 맞춰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인 일정을 조정하며 시간표를 계획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숙사 거주 문제로 고민하는 재학생도 있다. 이동준(국제지역·인도 14) 씨는 “비대면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기숙사 입사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는 신속한 학사 공지를 통해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캠 기숙사인 국제학사와 글로벌홀은 2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해당 기간 기숙사 미입사자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그 이후 기간의 환불엔 기존 입사비 반환 내규를 따를 것이라 밝혔다.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m)은 공식적으로 대면 강의가 시행되는 날짜부터 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하지 않은 기간의 입사비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텅 빈 설캠 본관 강의실 모습

대면 기간에도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이번 달 4일까지 조기 입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 대면 수업이 되기 전까지 입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지에 일부 재학생은 불편을 호소했으며, 기숙사생을 위한 △기숙사 식당 △자습실 △헬스장은 운영되지 않아 불만을 한층 가중시켰다.

## ◆우리학교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학교 측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단계별 수업 방식 전환 정책에 따른 학사 운영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할 시 ‘Switch 1 ON’ 정책이 시작된다. 이때 재학생은 학번에 따라 짝·홀수로 나눠 격주로 대면 수업에 참석한다. 단 수강 인원이 12명 이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거나 총 확진자가 일일 100명 이상 발생할 시 ‘Switch 2 ON’ 정책을 시작한다. 이 경우 강의 유형을 불문하고 전면 비대면 수업이다. 지난달 19일, 설캠 총학생회와 글캠 총학생회의 주도로 진행된 총장과의 면담에 따르면 총장과 재무대의부총장은 단계별 수업 방식 전환 정책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 자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부서별 운영도 변동됐다. 설캠 도서관은 한시적 비대면 기간인 이번 달 13일 전까지 기존 도서관 운영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며 14일 이후엔 학교 방침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글캠 도서관은 한시적 비대면 기간 중 자료실과 열람실에 한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식당을 포함한 교내 다중 이용 시설은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지난달 예정됐던 학부 학위 수여

식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취소됐다.

한편 글캠 국제교류팀은 이번 학기 학사 공지와 외국인 유학생 거취에 대해 모든 대면 수업이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한다고 알렸다. 해당 공지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돼 모든 유학생에게 안내됐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입국이 힘든 유학생은 본국에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캠 국제교류팀은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해 재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번 학기 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취소했으며 각 학교에 취소 권고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번만 아니라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4학년 2학기에도 이번과 같은 예외적 상황엔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합리적인 수업 방식 대책 강구

다른 대학에서도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수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약 5주간 비대면 수업 진행을 공지했으며, 서강대학교는 이번 달 29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생이 대면·비대면 수업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지만 일부 강의는 전면 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실기 △실습 △실험 과목을 포함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대체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중 일부는 학교 측의 독단적인 학사 진행을 지적했고,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학교가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의 대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한시적 비대면 정책으로 재학생이 받는 피해를 외면한 입장이다. 학교와 학생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10. 5(월)~10. 12(월)	10.31(토) 10:00	11. 12(목) 14:00	11. 16(월)~11. 20(금)
일반전형	2020. 11. 9(월)~ 11. 13(금)	12. 5(토) 10:00	12. 17(목) 14:00	12. 21(월)~12. 28(월)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http://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어긋나는 목소리들

지난달 19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HUFs DREAM 장학금(이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및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 편성을 알렸다. 동시에 성적장학금 축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재학생 반응은 부정

적이다. 더불어 학교의 부족한 재원에 우리학교 법인 '동원유희회(이하 법인)'의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과 성적장학금 축소에 대한 재학생의 의견과 법인 관련 논란을 알아보자.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한 우리학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지난 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입학금을 제외한 지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의 3%다. 김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다”며 편성 의도를 전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은 △기존 성적장학금 예산의 일정 부분△이번 해 예산 감축분△코로나19 극복 생활장학금 모금액을 활용해 충당한다. 이는 이번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등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양 캠퍼스 각 50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 총장은 “△교내 방역△수익사업 수입 감소△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학교 시설 운영 손실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재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성적장학금은 다음 달부터 기존보다 50% 축소돼 지급된다. 지난 학기 절대평가 시행으로 성적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여러 대학이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해 특별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학교는 성적장학금을 유지해야 한단 양 총학생회(이하 양 총학)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고 전했다.

## ◆학교의 대처와 계속되는 논란

외대학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및 성적장학금 축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제공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89.1%였다. 그 이유에 '금액 부족'이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액 선정 기준 불명확'이 29.6%로 뒤를 이었다.

성적장학금 축소에 관해서도 '불만족'이 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존의 성적장학금 금액 유지 희망'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금액 축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우세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금액 선정과 성적장학금 축소 기준에 대해 “학교 예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은 이에 반발했다. 등록금 반환의 일환으로 편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성적장학금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닌, 학교가 적극적으로 법인에 자금을 요청하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진행된 총장과의 면담에서 양 총학은 성적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연동 금지 및 법인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성적장학금 축소에 대해 “기존의 30%로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양 총학의 요청에 따라 50%로 조정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 ◆법인의 책임은 어디에

대학평의원회 안전자료인 '우리학교 자금 수지 및 운용 방향'에 따르면 이번 해 본 예산 대비 72억 원가량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 부지의 2017년 귀속 세금△지난해 미집행 이월 항목인 스마트도서관 등의 추가 지출△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소 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송도 부지의 2017년 귀속 세금과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법정부담금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체의 절반가량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9.4%로 매우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우리학교 법인은 다른 사립대학 법인과 비교하면 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고 전했다.

법인 측 관계자는 “현재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노력한 것이다”며 “다음 해 진행할 사업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게 된다면 100%에 가까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대한 법인의 지원 여부엔 “학교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재정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여전한 갈등, 앞으로는 어떻게

지난 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란 전국 대학생의 목소리에 우리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편성하고 있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 6월 29일,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대학생 1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99.3%가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학기 등록금 반환 금액 수준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단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대학의 특별장학금 금액은 평균 10% 내외다. △전국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는 각각 △8.3%△5%△6%씩 특별장학금을 편성했다.

한편 7월 30일, 교육부는 이런 대학생들의 요구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 원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번 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 측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인한 특별장학금 비용 증가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며 우리학교는 개강 후 2주간 비대면 강의 시행을 공지했다. 지금의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아 비대면 강의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반복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학교 모두 만족할 방법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상기에 봐야 할 때다.

###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 장학금) 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HUFs Dream 장학금, 가계곤란대상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성적장학금 변경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2020-1학기 HUFs Dream 장학금

-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초과 학기자 포함)  
\* 2020-1학기 자퇴, 제적, 휴학, 등록 휴학자는 제외
- 장학내용 : 등록금성 장학금
- 장학금액 : 2020-1학기 등록금 책정액의 3% (입학금 제외)  
\* 단, HUFs Dream 장학금은 1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지급방식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계좌등록 대상자 일괄 지급  
\* 장학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상환 하여야 함 (미상환시 2020-2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교 측 공지



▲법인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설캠 총학의 현수막

의 사업비 감소로 인해 45억여 원의 자금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측 관계자는 예산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 비용 지출과 학교 시설 미이용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용을 지목했다.

이런 학교의 예산 부족에 대해 양 총학은 학교의 집행부뿐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법인 이사회 역시 법인 전체 재산의 운용, 우리학교의 경영 심의 및 의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에 위 재정난을 해결할 의무가 있던 것이다. 이에 지난달 11일, 설캠 총학은 법인의 직무 태만 비판 현수막을 설캠 내 설치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교

# 수강신청, 학생들이 내몰린 전쟁터

지난달 10일부터 14일, 우리학교 2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당초 수강신청은 지난달 3일부터 예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방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또한 대면·비대면 수업의 혼재와 필수교양과목 수강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다양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수강신청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 시점에서 우리학교 수강신청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봤다.

## ◆ 우리학교 수강신청 실태

이번 학기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재학생은 시간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1학년 수강신청일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필수교양과목인 '미네르바 인문'과 '대학외국어'의 수강가능인원 표기가 잘못돼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전학년 수강신청일인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학년만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시간과 별개로 수강신청과 관련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수강신청이 대학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그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조악하던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 사흘에 걸쳐 공식 SNS와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통해 우리학교 재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학생이 대학생활에 있어 수강신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신청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89.2%가 '매우 크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10.8% 또한 '크다'고 답했다. 수강신청의 난이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84.1%가 '매우 어렵다' 혹은 '어렵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수강신청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응답자도 78.4%로 다수였다. 권혜영(사회·미디어 20)씨는 "입학 후 두 학기 모두 1학년 수강신청일에 10학점 미만의 수업을 잡았다"며 "수강신청 전날엔 긴장감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전했다. 모든 학생에게 중요한 수강신청이 대부분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변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 ◆ 학생들의 수업권 위협하는 우리학교 제도와 행정

수강신청에 대해 재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학교의 학사 제도 및 행정 방식과 연결돼있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관련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재학생들이 응답을 통해 제시한 우리학교 수강신청의 문제점은 크게 △강의 매매 문제△개인의 온라인 환경에 따른 편차 △부족한 수강가능인원△수업의 교·강사 배정 및 대면 여부 미정 등이다. 각 응답마다 문제상황이 상이하지만 결국 핵심은 수강가능인원 부족이다.

수강가능인원 부족 문제는 전공·교양 필수과목에서 특히 심각하며 고학년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다수가 전공·교양필수과목 및 고학년 수강자의 수강가능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졸업에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과목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학년의 수강신청 부담이 더 적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인 것이다. 일부 응답자는 과목마다 증원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강신청시의 이중전공생·부전공생 대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부 과에선 이중전공생·부전공생의 수강신청이 본전공생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중전공생·부전공생이 1,2학년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 채 3학년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경우 개론 및 기초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화 내용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여러차례 언급된 경영학부 부전공생의 경우 정정기간을 통해서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학기나 계절학기없이 경영학부 부전공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우긴 어렵다.

온라인 접속 환경과 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강신청 방식 또한 문제다.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수강 가능 여부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수강신청 당일에 많은 학생이 PC방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초라도 접속 시간을 당겨야 유리한 것이 우리학교 수강신청의 현실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컴퓨터 사양과 같은 기술적 결함 및 미비로 인해 수강신청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번 학기엔 대면·비대면 방식이 혼재돼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표를 짜는 과정이 보다 복잡해졌다. 이에 더해 일부 과목의 대면·교·강사 배치가 수강신청 이전에 확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증폭됐다. 일부 학생은 대면·교·강사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수업에 대한 불만을 겪었다. 또한 수강신청이 정정기간으로 연기된 교·강사 미배치 과목에 대해선 여전히 수강 가능 여부를 확정받지 못했다. 대면·비대면 문제는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권·주거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했다 것이 여론이다.

강의 매매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수 학기 전부터 공론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던 것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강의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있다.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강의 매매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또한 강의 매매가 계속해서 성행할 경우 수강신청에서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된다.

## ◆ 수강신청 환경개선에 대한 우리학교의 입장

설캠 학종지는 미네르바 인문과 대학외국어의 수강가능인원 표기 오류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했다. 설캠 학종지 측은 신입 담당자가 지난 학기 수강신청 인원을 이번 학기 수강신청 인원으로 그대로 반영해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 지난 학기엔 신입생과 기존 1학년이 나뉘어 수강신청을 진행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학년 인원 수를 적게 기입했던 것이다.

한편 설캠 학종지는 일부 수업의 교·강사 배치 및 대면 여부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학종지는 수업의 외국인 학생 비율과 외국인 학생의 대면 수업 참여 가능 여부에 따라 전면 대면 수업 혹은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과목별로 상황을 파악하다보니 결정이 늦어졌단 것이다. 윤병호 설캠 학종지 팀장(이하 윤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기간이 촉박했다"며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학생징계규정'에 강의 매매에 대한 유기정학 등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더불어 양 캠퍼스 학종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강의 수강 포기(이하 드랍)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다. 기존엔 강의를 드랍할 경우 수강신청 서버에 공석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시스템 개선 후엔 무작위 시간대에 풀리게 된다. 이 방식에선 공석이 서버에 올라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강의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던 것이 학종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양 캠퍼스 학종지는 이번 달 28일, 필수교양과목인 대학외국어 수업 4개와 컴퓨팅 사고 수업 3개의 추가 개선을 결정했다. 더불어 설캠 'HUFS Career Design'과 '체육(운동과 건강)' 과목도 증원됐다. 이에 대해선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설캠 학종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대학외국어와 컴퓨팅 사고 수업의 경우 적절한 학생 수 배분을 고려해 증원 대신 추가 개설의 형태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강신청 방식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질문에 설캠 학종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글로벌캠퍼스 학종지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지만 각 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학종지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했다.

## ◆ 앞으로 우리학교 수강신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선 설문조사에선 △고려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이 바람직한 수강신청 사례로 언급됐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수강희망과목을 등록한 후 해당 과목의 수강희망자가 수강제한인원을 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이뤄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성적△이수학점△학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수강신청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생마다 단과대학 수강가능학점에 비례한 마일리지 배당 후 이를 이용해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위 대학들의 수강신청방식이 가진 공통점은 예측불가능성이 적단 점이다. 자신의 수강신청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다음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수 초 안에 수강신청의 성패가 결정돼 전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학교의 수강신청방식과 비교된다. 황다현(통번역·일본어 16)씨는 "수강제한인원이 너무 적어 현재의 방식으로 추가학기 없이 졸업하기 힘들다"며 "우리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최근 본분인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부 대학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일고 있다. 수강신청과 같이 학생의 수업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권리 향상을 위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우리학교 역시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인론대학원(야간)

###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18(금) ~ 10.05(월)	2020.10.30(금)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5:00	2020.12.1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가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콘텐츠산업학과(문화콘텐츠산업)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전화이플리이 www.jinh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인론대학원**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 불가항력의 매력, 불가리아 생활을 돌아보며

“불가리아학을 전공해서 이번에 불가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아~ 불가리스! 맞죠?”

대부분에게 익숙한 유제품 상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곳, 불가리아는 간혹 몇몇 사람들이 “장미와 장수의 나라 아니냐”고, “키릴문자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덧붙여 주는 게 고맙게 느껴지는 동유럽 발칸반도의 생소한 나라다. 우리학교 ‘아너스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돼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해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불가리아에서 생활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너스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정부 및 기업의 해외진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략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연수 한 학기와 해외인턴 한 학기로 총 1년 과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한 학기만 진행되는 ‘인턴 only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해외 유학 생활에 대한 동경△전공 국가인 불가리아 생활에 대한 호기심△흔치 않은 해외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던 이유 등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지난해 2학기는 소피아대학교와 동 대학교 부설 아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불가리아어 수업을 들었고, 이번 해 1학기는 현대자동차 불가리아 법인에서 현장실습 인턴으로 지냈다.



교 국가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번 해는 우리나라와 불가리아의 수교 30주년이래 예정된 행사가 많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며 더 많은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당신이 미안해하시기까지 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편한 근무환경이 조성됐다.

불가리아학 전공생으로서 불가리아에 가는 이에게 대자연 감상을 꼭 추천한다. 불가리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도심 공원에서 근교 도시까지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다. 도심공원에선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고 등산로에선 표지판, 스키장에서 방어벽을 찾기 힘들다. 다소 위험천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기적 같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광활한 자연이 주는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릴 뻔한 적이 있었던 것은 숨기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근교에 있는 릴라 산△보로베츠의 스키장△벨리코 터르노보△소피아 시내에 있는 비토샤산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선 익숙하지 않은 트램, 트롤리버스와 같은 교통수단도 하나의 즐길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물가가 비싸지 않아 자연스럽게 교통비도 저렴하므로 다양하게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심지어는 택시도 가난한 유학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교통수단과 택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잘 돼있어 키릴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귀국했을 때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나 “수고했다”와 같은 말을 건넸다. 하지만 사실 내 유학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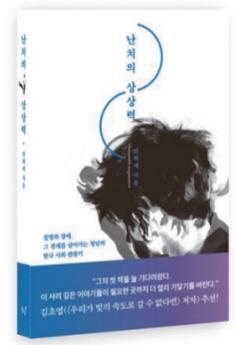
은 오히려 순탄한 편이었다. 불가리아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위급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던 것에 감사하다. 또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자립심을 얻은 것에도 감사하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행했던 일들을 혼자 해냈을 때의 뿌듯함은 다른 뿌듯함과 달랐다. 내 능력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던 사실이 색다른 감정을 안겨줬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나름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외출할 걸△다시는 일상이 아니게 될 일상을 좀 더 소중히 여길 걸△사진과 영상을 좀 더 많이 찍어둘 것과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는 것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해외 유학 경험이 주어진다던 이런 감정이 최소한으로 남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나 자신에게 강조하고 싶은 다짐이기도 하다.

이제 날 기다리고 있는 건 이수해야 할 학점이 수 두룩하게 쌓여있는 3학년 2학기지만 지난날의 기억으로 나아가 보려 한다. 우리학교 학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재학 중에 꼭 경험하길 바란다.

글·사진 오하린(국제지역·글로벌 18) 제공

## 한국 신간 도서를 조명하다 <난치의 상상력 - 아픈 청춘은 없다>



‘난치의 상상력’은 크론병\*으로 투병 중인 20대 청년이 써 내려간 에세이자 사회 고발기다. 저자는 크론병을 겪으며 부딪혔던 수많은 사회의 의심과 고통을 이 책을 통해 낱알이 밝힌다.

크론병 환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있다. 휠체어를 타고 정리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전형적 장애인’ 옆에 섰을 때 비장애인처럼 보이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잘 먹는 ‘전형적 비장애인’ 옆에 섰을 때 장애인처럼 보인다. 이처럼 크론병 같은 기저 질환\*\* 환자의 몸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때에 따라 죽을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괜찮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처럼 장애를 나누는 사회를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런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면 장애인으로서 보지 못했던 사회의 편협한 관점을 알 수 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달린 버스를 만 들기보다 ‘진짜 다리 같은’ 의족을 만들어 전시하는 대기업, 소외 계층의 문제를 기저 질환으로 비유하며 기저 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언론은 장애에 대한 고정방식을 강화한다. 저자는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안쓰럽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그저 다른 특징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다.

책은 청춘의 아픔이 과연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의문을 던진다. 대학생은 자주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자신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쉬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난치의 상상력’에 등장하는 아픈 청춘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며, 장애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의 벽을 뛰어넘으려 노력한다. 사회가 말하는 ‘청춘’의 미덕인 △건강함△애주가△여행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저자는 청춘이 해야 하는 성찰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국의 대학엔 배리어프리\*\*\*가 잘 형성되지 않은 공간이 많아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것을 ‘주변에 장애인이 많이 없다’고 쉽게 오인한다. 그러나 건강한 이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그치지 말지 않은 우리 옆에 있다. ‘난치의 상상력’을 통해 청춘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자신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던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크론병: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기저 질환: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리킨다  
\*\*\*배리어프리: 교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Global HUFs' tory ①

### GLOBAL HUFs, GREAT FUTURE!

크고 강한 융복합 대학, 그 웅대한 여정을 시작하다  
- 1980년 글로벌캠퍼스 마스터플랜



▲1985년 글로벌캠퍼스 입구



▲1970년대 글로벌캠퍼스 건립 부지 전경

“본 계획의 목표는 우리 대학의 특성인 외국 어교육을 중추로 하여, 점진적으로 △인문△ 사회△자연△공학 등 광범한 교육을 통하여 인재의 교육 및 사회에의 지적 봉사라는 교육 이념의 달성을 위하여 제반 물리적 교육 환경 구현에 관한 일차적 장기 계획을 추진함에 있다”  
-1980년 외대 용인캠퍼스 마스터플랜 중-

1954년 국내 최초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범한 우리학교는 1970년대 이후부터 교육 영역과 시설의 확장, 학과 증설 등 양적 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캠퍼스 공간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과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학 승격을 위

한 △공학△인문△자연과 학 계열의 학과 설립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했다. 1980년대 당시 시·정부의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각 대학의 분교 설치 불과 함께 우리학교의 제2캠퍼스 건립이 구체화됐다.

1979년 9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설립 인가와 함께 이듬해인 1980년 10월 2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마침내 종합대학교의 시대를 열게 됐다. 그리고 1981년 8월 25일, 마침내 용인에서 첫 수업이 진행되며 글캠 40년의 역사가 시작됐다. 글캠의 설립으로 우리학교는 외국어 중심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교육 시설의 양적 팽창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이끈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1979년 제2캠퍼스 설립 추진과 함께 작성된 마스터플랜은 약 20년이 소요된 장기적 단계적 계획이었다. 18만㎡ 부지에 △강의실△기숙사△도서관△박물관△소극장 등 42개 동의 건물을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교육 시스템적으로도 △공학△자연△인문△예술△의과대학 등을 신설해 우리학교의 전통적 특수성을 능가하는 다양한 학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13만 외대 구성원들과 함께 불혹을 맞이한 글로벌캠퍼스의 40돌을 축하합니다.

# 대학의 성적평가,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지난 학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이 성적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 바 있다. 우리학교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한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가 원칙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이 혼합되었음에도 절대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

지난 학기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절대평가가 시행됐다. 이후 갑작스레 바뀐 평가방식으로 인해 성적 변별력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총장)이 이메일을 통해 재학생에게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해 성적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성적장학금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이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학교 측은 당장 2014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전엔 20명 이하의 과목과 재수강 학생에 한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절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추후 발표될 대학평가에 있어 우리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유를 들었다. 대학평가를 통한 불이익으로 △국가장학금 축소 △정부 주도사업 참여 제한 △정원감축 △학교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도 대학 학점의 변별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결정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료에서 학점분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이번 학기 또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병호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팀장(이하 윤 팀장)은 “지난 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대면 수업만큼의 변별력을 갖기 힘들었다”며 절대평가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는 △교수 의견 △다른 대학의 추세 △학생 의견을 수용해 결정된 사항임을 덧붙였다. 권성배 글로벌캠퍼스 학종지 팀장(이하 권 팀장) 역시 지난학기에 공정성을 위해 치러져야 했던 대면시험이 감염의 위험으로 무산돼 절대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의 성적평가는 △50명 이하 학부 전공과목 △실용외국어 △체육 실기 과목 등 일부에 한해 대면 수업이 예정되었지만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여전히 상대평가를 진행하기에 성적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 총학생회와 학생의 입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의 대표 공약엔 ‘어학 강의 성적평가 방식 개선’이 있었다. 2018학년도 총학생회가 학사제도협의회를 신설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어학 강의에 대한 절대평가를 적극 요구했지만 당시 어학 강의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설캠 총학생회장은 후보 시절 당시, 2014년엔 학교가 대학구조평가 때문에 모든 수업을 급격히 상대평가로 전환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학교가 평가기관의 눈치만 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학교 측이 절대평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1학년 초급 회화 수업부터 점진적이고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 다짐했던 바 있다.

지난 학기 절대평가 시행에 대해 많은 학생이 만족스럽던 반응을 보였다. 강찬구(통번역·아랍어 20) 씨(이하 강 씨)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일정 성적 기준만 넘으면 되는 방식이기에 충분히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규태(중국·중외통 19) 씨(이하 이 씨) 또한 기존 상대평가 방식이론 언어 관련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동기가 많아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반면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었다. 강 씨는 절대평가라 해도 담당 교수 및 수업별로 성적 산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또한 일관성 없는 평가 기준으로 인해 상대평가 때보다 성적을 못 받은 학생도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절대평가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학점 4.0 이상을 인증하는 글을 많이 봤다”는 의견을 밝혔다.

## ◆ 앞으로의 계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이번 학기 다른 대학도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연세대학교는 2학기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더불어 중간고사 이후 수업계획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는 이번 학기 중간·기말시험

평가방법은 교수의 재량에 맡기며 성적평가는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학기 모든 학교가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서강대학교는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결석일수가 주당 수업일의 2배가 넘으면 낙제하는 제도(FA)를 시행한다.

우리학교는 개강일로부터 2주간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 학기에도 절대평가를 계속 이어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이에 윤 팀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화되면 성적평가 규정에 의해 기존처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권 팀장 또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성적평가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오신현(경상·국제금융 17) 씨는 수강생이 적은 수업이나,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저학년 언어 수강 과정에서 비슷한 실력임에도 성적 편차가 심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방식에 치중하기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적절히 섞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적평가

가. 이번 학기에 한하여 전체 교과목 절대평가 (단, P/F 평가 과목은 기존대로 시행)

성적 산출근거에 의한 점수(성취도)를 A+ ~ F 등급으로 교수 재량에 의해 부여함.  
※ 성적 등급별 제한 인원 없음, 재수강생 학점 상한 A0

### 성취도 환산 (예시)

100점 기준점수	성적등급	100점 기준점수	성적등급
95 ~ 100점	A+	70 ~ 74점	C0
90 ~ 94점	A0	65 ~ 69점	D+
85 ~ 89점	B+	60 ~ 64점	D0
80 ~ 84점	B0	60점미만	F
75 ~ 79점	C+		

▲ 2020학년도 제2학기 개강 안내문

김재현 기자 01chae@hufs.ac.kr

##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21(월) ~ 10.05(월)	2020.11.02(월)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29(목) 15:00	2020.12.1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무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 (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 (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 (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 (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 (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시설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 ~ 2FAX: 02-2173-35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로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 뉴미디어계의 규제 사각지대, 해결책은?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희망직업 설문조사 상위권에 '크리에이터\*'가 자리매김할 정도로 우린 '뉴미디어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미디어 업계에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금 규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미디어 업계의 불편한 진실△뉴미디어 수익 구조의 한계△뉴미디어 규제 현안△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뉴미디어 업계의 불편한 진실

지난달 21일, 한 크리에이터가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PPL임을 알리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표기하는 다른 크리에이터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다. 광고임을 알리기 위해선 영상에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크리에이터는 영상에 광고 여부를 표기하지 않거나 부가설명란에 작게 표시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뒷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광고 모델이 광고료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홍보 효과가 좋아 기업에서 선호한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며 일부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초대형 MCN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IT와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뒷광고는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유명인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물 582개를 분석한 결과, 408개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미디어계의 일부 뒷광고는 의료법 위반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일부 영상엔 광고 표시도 없이 △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을 방문해 상담받고 치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후기를 설명하며 치료 효과 및 장점을 열거한다. 이런 영상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인이 아닌 크리에이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적이 제기됐다.

## ◆뉴미디어 수익 구조의 한계

뉴미디어 업계에선 기성 방송사와 달리 개인이 직접 메일로 광고 문의를 받는다. 광고업체는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 관계를 무시한 채, 제대로 된 수익 구조도 갖추지 않고 그들의 인기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MCN업체 관계자는 "뉴미디어 플랫폼에선 본인의 채널이 곧 미디어이기에 크리에이터가 '갑'이다"라고 밝히며 MCN업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뉴미디어 플랫폼은 뒷광고 논란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벗어나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뒷광고 논란에 대해 "모든 유료 프로모션은 유튜브 광고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이후 마땅히 다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크리에이터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구조가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형태가 아닌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은 크리에이터의 탈세로 이어진다. 인터넷 방송의 소득 지급처는 해당 플랫폼이기에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 그들은 뒷광고로 수천만 원 가량의 광고비나 상품 판매 수익을 얻지만,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단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유명 크리에이터의 뒷광고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뉴미디어 플랫폼의 일종인 유튜브 (출처: 유튜브)

## ◆뉴미디어 규제 현안

이에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된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다. '표시광고법'상 뒷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한정돼 있어 크리에이터를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직 크리에이터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표시·광고법은 광고주 규제가 중심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에선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독일의 경우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유해 콘텐츠가 발견될 시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한편 이번 해 1월,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前) 의원은 유명인이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번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의하면 크리에이터가 영상 제작에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제목에 '광고'란 문구를 삽입하거나 5분마다 '유료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해당 문구를 작성할 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인스타그램△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진행할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했다.

편법을 활용해 뒷광고를 받는 크리에이터가 범람 밖에 있던 지적을 반영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뉴미디어 매체의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해 사전 불법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성 게시물 중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심의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이미 게시된 의료광고물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고△시정△행정처분하는 사후 집중단속도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 의원은) 뒷광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함께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 시행으로 뉴미디어 업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

\*크리에이터: 인터넷 플랫폼에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창작자  
\*\*MCN업체: 다중 채널 네트워크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소속사.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 간: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 제: 다음은 저작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설명일까요?
  - ① 가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경우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
  - ② 광고회사에 고용되어 광고물을 만든 경우 직접 만든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대표로 한 사람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샀다면 작품의 저자명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 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 코로나19 재확산, 결전의 기로에 선 K-방역체계

이번 해 5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중대본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일부 종교인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검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김형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임상교수(이하 김 교수)와 보건정보관리학을 연구 중인 이현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김형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임상교수

이현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교수

**Q1. 이번 해 6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가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보고서 2020'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성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K-방역체계'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 교수:** 현장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료인△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의 반성이기도 해요. 메르스는 중동이 원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했습니다. 당시 정부 대응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 전염병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했어요. 이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중국 주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중국의 방역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기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진 감염예방책을 갖춰 의료진을 보호했습니다. **이 교수:** 감염병 사태에 대한 기존 준비와 그에 따른 초기대응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즉시 컨트롤타워 수립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대구 신천지 교회 발 집단감염 발생 하루 만에 △중앙사고수습본부△질병관리본부△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인력으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른 대응이 이뤄졌죠.

**Q1-1. 이런 방역체계를 구축·실행하는 조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함께 대응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경찰△국방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가 역할을 각자 분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방역체계를 구축하면, 이에 대한 실질적 병상과 인력을 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방부가 지원하는 형태예요. **이 교수:** 중대본이 코로나19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여러 부처에서 협력해 만들어진 부서로 전문성이 높고 분업과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정부 각 부처에서 △물자△병상△인력 등의 지원을 지원합니다.

**Q1-2. 우리나라는 어떻게 초기 코로나19 환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가요?**

**김 교수:** 초기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보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중국에선 병실이 부족해 임시 병원을 건축하거나 체육관을 개조해 병상을 마련했죠. 하지만 각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

나라는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확산을 막고 중증환자만 입원시켜 효율적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Q2. 우리나라의 감염병 감시체계는 크게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와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로 구성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체계는 무엇인가?**

**이 교수:** 표본감시체계는 일정 기준에 의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확진자를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환자 발생 전수 보고가 어렵거나 인플루엔자(Influenza)와 같이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을 다룹니다. 전수감시체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보건당국에 발생 사례를 의무적으로 전수 신고하는 체계예요. 치명률과 집단 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감염병을 분류해요.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63종에 대해 전수감시체계를 운용합니다. 발생 사례를 전수 신고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예요. 현재 코로나19는 발생 즉시 전수 신고 해야 하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 동선과 감염 경로를 파악합니다.

**Q3.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 체제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란 플랫폼을 이용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아 실시간으로 분석해 확진자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규모 발병 지역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을 파악하기도 해요.

**Q4.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집단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위명단 작성이나 도주 등 감염병 예방법상 협조 의무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더불어 지난달 중순부터 산발적인 발생으로 감염 경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일명 '깜깜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이 교수:** 비협조와 허위명단 작성 등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대표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1.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이들과 '깜깜이' 확진**

**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 치료제 개발 이전에 피해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17번 확진자가 고양시 일대와 강남구를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더불어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 4명은 음성으로 판별된 사례가 있죠. **이 교수:**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진단·역학조사와 환자 및 접촉자 관리·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깜깜이 확진자의 경우 △스마트 검역 시스템 강화△역학조사 투입 인력 보충△통신사 및 카드사와 같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Q5. 만약 이번 위기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봉쇄(Lockdown)'와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 없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시 및 격리 체제로 충분히 방역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지는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미 퍼져 나간 상태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교수:** 현재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로 수출할 만큼 인정받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 기존 시스템의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요청한 개인정보 방역수칙을 국민이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 강구가 필요하죠.

**Q6. 이번 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현 방역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바이러스 변형이 우려되는 시점이라 앞으로 코로나19 관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역할을 사전에 정해놓아 재난 발생 당시 곧바로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담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이번 달 12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예정이에요.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관리·통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행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존재해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보안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 about 이문일공칠



###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외대서림'이라는 대학 서점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창구가 되고자 201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적·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대문구에 지식과 교양, 문화와 예술의 심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문일공칠은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도서 담당 제갈승현**  
E-mail\_ info.imun107@gmail.com  
Instagram\_ @imun107\_notice  
blog\_ blog.naver.com/imun107\_hufs



### BOOK

이문일공칠 서점은 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지적 경험의 터입니다. 고민, 취향, 바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묶인 도서는 자유서적 이재필 이사가 큐레이션했습니다.



### COFFEE

이문일공칠은 라마르조코와 협력해 최상의 원두와 커피 맛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커피 클래스를 개설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CULTURE

이문일공칠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 동아리 등과 협업해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문일공칠은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산하 기구입니다.



## 선한 영향력

매해 초 학교에선 의례적으로 학생의 장래 희망을 묻는다. 그때마다 난 항상 기자라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란 직업이 멋져 보여서 그랬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 됐을 때 방송부에 들어갔다. 물론 기자가 하는 일을 방송부에서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학교와 학생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막연히 생각했던 언론인의 꿈을 그때부터 진정성 있게 생각하게 됐다.

지난해 초 한 기사에 의해 '버닝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명 아이돌이 운영하던 클럽에서 몰래 여성에게 약을 먹여 강간하고 그것을 촬영해 공유하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받으며 수사의 대상이 됐고 클럽 관계자와 경찰의 유착관계까지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난 버닝썬 사건을 보며 그릇된 성 관념 의식에 대해 통탄했다. 이와 동시에 버닝썬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 존경심을 갖게 됐다. 정의를 위해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

외대학보에 처음 들어와서 수습기자 교육을 받았다. 경기일보의 한 기자님이 특강에서 해준 말이 기억난다. "대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좋은 기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니 난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내 자신을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내게 여성스럽단 칭찬을 하면 불편했고 티비에 나오는 폭력적 유머에 불쾌함을 느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 내 불편함이 틀린 게 아닌란 걸 깨달았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단 것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보면 어찌지'란 생각에 느낀 불편함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직 기자님의 특강을 통해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알게 됐다. 평소 단점이라 여겼던 성격이 기자란 직업을 통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뀔 수 있겠단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언론은 가능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 그래서 누군간 언론을 통제하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내게 외대학보 기자 생활은 언론이 가진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이다. 내가 쓰는 기사가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단 걸 명심해야 한다. 책임감을 갖고 시작한 만큼 평소 생각했던 정의로운 기자의 역할을 실천해 기사를 쓰고 싶다. 약자의 피해를 조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사를 통해 언젠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민주 기자



## [책 '여행의 이유'를 읽고] 어떤 여행자의 자세

경험은 인간에게 중요한 도구다. 인간은 기억에 의존해 결정하고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간다. 여행은 평범하고 나른한 일상과 상반된 성격의 경험이다.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간다. 이를 통해 평소 보고 듣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기억을 곱씹으며 일상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다. 우리에게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김영하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에선 여러 이유를 들어 여행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중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자신의 집에 '상처'가 있다고 밝힌 작가는 가족에게 받은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택한다. 작품의 영감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작가에게 여행은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항상 돌아올 지점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떠난다. 여행의 목적지는 바뀔 수 있지만 집과 가족이 있는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여행이 실패하거나 곤란을 겪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은 우리의 안식처다. 일상을 탈출하지만 결국 다시 복귀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여행의 목적으로 ' somebody(누군가) '와 ' nobody(아무도) '의 차이를 제시한다.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낯선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극적△나이스△성별△피부색으로 점철된 고정관념이 정체성을 대신한다. 결국 여행자는 타지에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다. 작가는 현명한 여행자의 태도를 '자신을 낮추고 노바디로 움직이는 것'이라 설명한다. 우리 선망하는 여행지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길 바라고 그 외 여행지에선 특별한 존재가 되길 꿈꾼다. 뉴욕과 같은 선진국에선 산책 나온 현지인처럼 보이길 바라며 여행자임을 숨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적극적으로 여행자임을 드러낸다. 이는 여행지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단 이유로 특별하게 대우받길 원하는 것은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여행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작가는 여행에서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한다. 하지만 그 여행으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시간이 흘러 이 여행을 복기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노바디가 될지 somebody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우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가지 않는다. 때론 여행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아들며 더 나은 나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여행의 이유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버닝'을 보고]

## 3명의 청춘, 현실을 마주 보는 3가지 방법

사람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화 '버닝'은 주인공들의 삶의 태도를 집요하면서도 담담하게 보여준다. 작중 주인공인 △벤△종수△해미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먼저 '종수'는 현실에 순응해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에게 소설가란 꿈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종수의 소꿉친구인 '해미'는 이상의 현실화를 갈망한다.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아 성형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갖고 싶은 물건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땐 팬터마임\*을 통해 '없다는 개념 자체를 잊는다'며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다. 마지막 인물인 '벤'은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다. 작중에선 여행, 사교 파티 등을 자신이 원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실행한다.

그러던 중 벤은 우연히 여행지에서 해미를 만나게 된다. 여행을 마치고 둘이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하며 주인공 3명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된다. 종수는 자신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사는 벤에게 이질감과 열등감을 느낀다. 반면 해미는 벤을 선망한다. 이상을 현실화하는 벤의 모습은 그녀가 그러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벤은 이런 두 명을 처음 발견한 동물처럼 흥미롭게 관찰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벤의 경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던 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종수는 해미의 실종이 벤과 연관됐다고 믿고 그의 집에서 그를 범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물증을 찾는다. 결국, 종수는 벤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에 더 불어 해미의 실종이 기폭제가 돼 벤을 살해하게 된다. 살해 후 종수는 마치 자신이 해미의 복수를 한 것처럼 태연하게 벤의

시체를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영화는 종수가 현실의 무게에 접어뒀던 소설가의 꿈을 다시 펼치기라도 하듯 해미의 집에서 글을 쓰는 장면을 보여주며 막을 내린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현실 속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각자의 능력은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의 무게는 각기 다르게 느껴진다. 종수처럼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를 간신히 견디는 사람이 있지만, 해미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와중에도 꿈을 갈망하는 부류가 있다. 많은 이가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뇌하며 살아간다. 고뇌의 연속은 벤의 경우가 드물단 걸 점차 깨닫게 만든다.

그러나 소시민은 언제나 현실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종수가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했듯이 누구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가능성을 터뜨릴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없어 발현되지 못할 뿐이다.

'꿈을 꾸는 한 삶은 이어진다'란 격언이 있다. 패배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 유효한 말이라 생각한다. 벤처럼 꿈꾸고 해미처럼 노력하고 종수처럼 견뎌내며 차가운 현실에서 따뜻한 낭만을 실현하고 싶다.

\*팬터마임: 대사 없이 몸짓 표현만으로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연극적 형식 또는 연기.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0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20년 2학기 외대학보 1046~1050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9월 4일(금)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이나 외대학보 인스타그램(@hufspress\_official)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의** 서울캠퍼스 김하늘 기자 010-2943-4789/ 글로벌캠퍼스 김채현 기자 010-5680-2214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 시작하기에 앞서

국·부장 고정칼럼

어느새 절기상 가을에 들어섰다. 훌쩍 찾아온 여름의 날씨가 생경하게 느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자락에 다다랐다. 끊이지 않는 비 소식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개강호를 준비했다. 이번 1046호는 하반기를 여는 첫 호다. 이번 해 두 번째 시작은 어떨까.

이번 호엔 개편을 맞아 신설된 코너가 여럿이다. 먼저 국제면의 변화가 가장 크다. 지난 학기 기미독립선언서 번역문은 마무리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학교 해외 프로그램 경험담을 볼 수 있다. 바로 옆에 여행지를 소개하던 '비정상회담'도 '읽어서 세계속으로'란 국제 신간 도서 추천으로 바뀌었다. 매호 기자들이 한 줄 평을 남기던 11면의 공간엔 한 줄 시사 정리가 생겼다. 이외에도 지면상에 모두 드러나진 않지만, 하반기를 준비하며 내부적으로 꽤 치열한 새 단장을 마쳤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3일, 이번 학기 수업방식을 발표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예정됐던 수강신청 기간도 한 주 미뤘다. 그렇게 발표된 '단계별 전환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학교 측은 자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에 이번 학기 수업이 2주간 전면 비

대면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이 늘어가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다. 급변하는 상황은 상반기에 우리 모두 경험했다. 그때의 불안과 문제점을 이미 마주한 적 있으니 이번엔 새로운 대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학교의 학사 운영 공지에 드는 기시감은 선부른 걱정일길 바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 속, 우리학교 구성원과 외대학보 모두 두 번째 시작을 위한 준비가 헛되지 않길 기대한다.

허지나 편집장 99.jina@hufs.ac.kr



##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대학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국내의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여름이 오면 상황이 진정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실제로 고비는 있었지만 4월 이후 확산 속도는 진정세를 보였다. 미국, 유럽 등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와 동시 K-방역에 대해 나름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협은 줄지 않았고, 2차 확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생활방식은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일상생활의 만남이 부쩍 줄었고, 식당, 상점에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관광 등 서비스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또한 대거 취소되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락다운 조치가 없었고, 상업시설을 폐쇄하는 섯다운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침체되었고, 기업의 생산활동도 차질을 겪는 것이 불가피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것도 처음 겪은 경험이다. 일터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사무실의 업무환경이 변화했다. 과거에 화상회의에 기반을 둔 재택근무는 주로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많은 기업이 국내출장을 자제하고, 해외출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화상회의가 새로운 사회적 기준(뉴노멀, New Normal)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언택트란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contact와 부정의 의미를 담은 'un-'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활동이 가능한 방식을 의미한다. 가령 과거에는 구매를 위해 상점을 방문, 판매자와 접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언택트 활동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언택트 활동은 IT 등 온라인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의 교육환경도 과거와 다른 궤도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또는 원격강의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는 전통적 대학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업준비를 위한 인터넷 강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전통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이와 같은 강의는 공간 이동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염 등의 위험으로 인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원격수업은 시행 초기 경험 부족과 인프라 구축의 미흡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학사회는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전히 대면강의에 비해 학습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면강의가 갖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차선의 선택이다.

대학교육은 일방향의 지식전달이 아닌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수관계를 형성하고, 대학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저변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데에 있다. 코로나19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지만, 충격의 여파는 개별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거버넌스와 자원배분, 갈등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는 일정 수준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야만 종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 인류가 하나의 과제에 이토록 모든 지혜를 집중해 본 사례가 있을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대에 입각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 www.시사한줄토익.com

**사회:** 지난달 27일, 태풍 '바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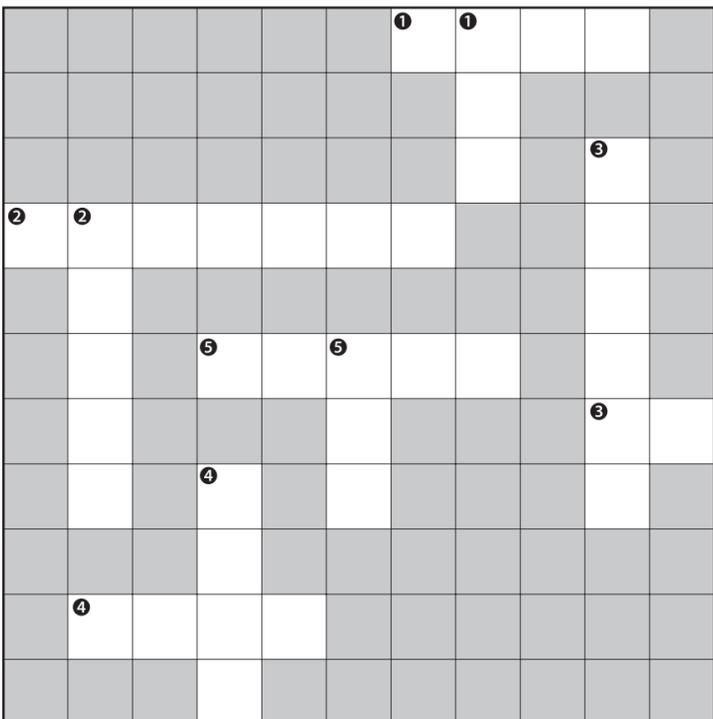
**정치:**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국회 섯다운, 이번 달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경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조치

**국제:** 지난달 24일 중국 기업 틱톡, 미국 연방법원의 틱톡 거래 금지 시도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 제기

**스포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야구·축구 프로리그 시즌 중단 위기 직면

## 십자말풀이



### 가로

1. 당시 대다수 언론사와는 달리 KBS는 ○○○○이라 나이 제한이 없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2면 참조)
2. 학생부교과전형의 ○○○○○○ 심사 방법이 변경됐다. (1면 참조)
3. 이에 뉴미디어에 대한 ○○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면 참조)
4. 교내 ○○○○는 재학생의 사용 빈도가 높고 밀집 시간대가 비슷해 방역에 취약하다. (3면 참조)
5. 코로나19 ○○○○은 지난 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면 참조)

### 세로

1. 선한 ○○○ (10면 참조)
2. 우리학교 특수외국어 ○○○○ (2면 참조)
3. 우리학교는 ○○○○○○에 강의 매매에 대한 유기정학 등의 처벌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5면 참조)
4.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가 재단장된다. (2면 참조)
5. 코로나19의 ○○○○에 따라 이번 학기 다른 대학도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7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9.jina@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허지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 지상파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 이소정 KBS 메인앵커를 만나다



지난해 11월, 지상파 평일 뉴스 최초 여성 메인 앵커가 탄생했다. 2003년 KBS에 입사해 △경제부△사회부△탐사제작부 등을 두루 거친 이소정 기자다. 2006년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먼저 멕시코 반군 '사파티스타'를 단독 취재해 그해 한국여기자협회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엔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았다. 메인 앵커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과 걸어진 발자취를 알아보자.

### Q1. 대학 시절, 언론인이 되기 위해 했던 활동이 있나요?

대학교 3학년 전까진 언론인이 되겠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 특별히 한 활동은 없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삼성에서 추진했던 국제지역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부원을 선발했는데, 그때 중남미권 지원자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역연구를 하고 발표와 세미나를 경험했죠. 당시 중남미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맥이 소중한데요.

### Q2.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경험이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나요?

사실 스페인어는 언론과 연관이 없죠. 관련된 전공을 공부해야 언론사 시험을 볼 수 있던 생각은 편견입니다. 오히려 현직엔 다양한 전공의 사람이 있고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중남미에 다녀왔던 경험과 스페인어를 한단 특수성을 강조해 입사 면접 때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방송국에서 스페인어로 인터뷰할 때나 해외 유명인사가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 해석을 해달란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입사 전이든 후든 본인만의 전문성을 갖는 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 Q3. 언론인의 길을 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자란 직업을 많이 추천하곤 했죠. 이로 인해 막연히 기자란 꿈을 가졌는데 크면서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갔다 복학을 위해 귀국 준비를 할 때, 아빠가 국제전화로 제게 '너 어릴 때부터 기자 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던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어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고민하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단 마음에 4학년 때 무작정 뒤늦은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기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 Q3-1. 기자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떠셨나요?

요즘 들어오는 후배들은 일찍부터 일명 '언론고사' 를 준비합니다. 스튜디오 하고 책도 미리 많이 읽는데 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케이블 방송사에 입사했다가 1년 반 만에 뛰쳐나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다시 공부를 하고 입사해 동기 여기자 중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사와 달리 KBS는 공영방송이라 나이 제한이 없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사는 수석으로 했어요.

### Q4. 2003년 KBS 입사 후, 2006년 멕시코 반란군 사파티스타를 단독 취재해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나요?

대학생 시절 멕시코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남부 밀림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이 버스

민했는데 갑자기 평일 저녁 9시 뉴스를 맡게 돼 당황했죠. 언론고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연륜 있는 남자만 메인 앵커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메인 앵커 자리를 제의받았을 때 의아했습니다. 이후 이 기회가 여기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느껴 짧은 고민 후 맡게 됐습니다.

정말 일주일 뿐입니다. 매일 편집 회의를 하고 취재 기자의 원고를 받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만을 전달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죠. 시청자가 제보한 사실과 제가 전달한 사실이 쌓여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KBS본관 앞에서 외대학보 독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한 이소정 앵커(사진: 이준성 기자)

에 올라와 살벌한 분위기로 여권을 검사하고 몇몇을 끌고 갔어요. 같은 어학당을 다녔던 프랑스 사람은 그때 추방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멕시코 반군 사파티스타를 지원 하는 외국인 시민단체를 단속하는 거였죠. 그 프랑스 사람이 추방당하기 전, 당시 끔찍한 현장을 찍은 사진과 조사자료를 제게 다 넘겨줬습니다. 이후 방송국에 입사해 KBS 국제부의 '특파원 현장보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을 때, 간직하던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도 반군 지도자까지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 Q5. 지상파 방송국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해엔 육아휴직을 고

### Q7. 현재 9시 뉴스 메인 앵커로서 현시대에 언론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유튜브와 SNS상의 미디어를 쉽게 언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진실이 뭔지 냉철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수많은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기준이 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8. 앞으로 언론인으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앵커가 물론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명예도 있지만 오래 하고 싶진 않아요. 자랑스럽지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의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보직을 맡기보단 열정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 Q9.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삶의 가치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쉽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여정 중에 좋은 기자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기자란 확신이 들면, 좋은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던 생각이 드니까요.

### Q10.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재학생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개인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집안이 안 좋거나 스펙이 부족하던 것 등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때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얘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열어놓고 판단하며 내공을 쌓으세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 Q5-1. 메인 앵커가 되기 전, 직장 내 '유리천장' 을 느끼셨나요?

KBS는 비교적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대우도 괜찮아요. 하지만 편견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정치계나 법조계 관련 취재현장에서 단순히 '어린 여자'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근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 Q6. 메인 앵커 역할을 수행하신지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느낀 바나 지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메인 앵커가 차려입고 나와 원고를 잘 읽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그 시간은